

# KIA 최형우, 누구도 못뺀 1500타점의 문을 연다

최형우, 통산 1498타점으로 현재 이승엽과 타이타점 1개 추가하면 신기록...1500타점도 눈앞

KIA 타이거즈 최형우(40)가 누구도 가지 못했던 통산 1500타점의 문을 연다. 최형우는 19일(한국시간) NC 다이노스전에서 1498번째 타점을 수확하며 이 부문 역대 1위를 지키고 있던 이승엽 두산 베어스 감독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제 타점 1개만 추가하면 KBO리그 역대 최다 타점의 새 주인이 된다. 1500타점 시대도 눈앞이다. 자리를 잡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부단한 발걸음으로 누구보다 멀리 걸어왔다. 2002년 포수로 삼상 라이온즈에 입단하며 프로에 첫 발을 내디뎠던 최형우는 2002년 4경기, 2004년 2경기에만 출전한 뒤 2005년 방출돼 쓴맛을 봤다. 야구를 포기할 생각까지 했던 그는 경찰야구단을 거쳐 2008년 삼성에 재입단하며 다시 기회를 붙들었다. 그렇게 다시 출발선에 선 최형우는 재입단 첫 해 신인왕을 거머쥐며 야구

인생의 반전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후 최형우는 꾸준한 활약을 펼치며 KBO 리그를 대표하는 타자 중 한 명으로 자리를 잡았다. 15시즌 연속 50타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이 기간 매년 두 자릿수 홈런을 때려냈다. 마흔을 넘어선 지금도 팀의 4번 타자를 책임질 만큼 뜨거운 방망이를 자랑한다. 한창 전성기를 구가할 때도 남들보다 뒤늦은 출발을 떠올리며 "우리나라 야구의 통산 기록을 바꿀 능력은 안 된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쉬지 않고 베트를 돌린 그는 마침내 KBO리그 새 역사를 마주하게 됐다. 이미 통산 2루타 부문에서는 신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다. 지난 4월23일 삼성전에서 465번째 2루타를 쳐 이승엽 감독(464개)을 넘어섰고, 현재 통산 476개로 이 부문 선두를 지키고 있다. 올 시즌 최형우는 58경기에서 타율 0.308, 8홈런 37타점을 기록 중이다. 최형우의 대기록 도전과 함께 KIA는 '5강권 진입'을 목표로 한다.



KIA 타이거즈 최형우가 통산 1500타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사진은 최형우가 홈런을 치고 베이스를 돌고 있는 모습.

6위 KIA(27승1무13패)는 이번 주 중 한화(23승4무36패)에 이어 주말 KT 위즈(26승2무34패)를 만난다. 하위권 팀들이지만 최근 기세가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방심할 수 없다. 선두권에서는 시즌 40승 선점을 두고 경쟁이 벌어진다. 1위 LG(39승2무24패)는 40승까지 1승만 남

겨졌다. 1위 LG를 0.5게임 차로 추격하고 있는 2위 SSG 랜더스(38승1무24패)도 2승만 더하면 40승 고지를 밟을 수 있다. 40승 선점 팀의 정규시즌 우승 확률은 36차례 중 23차례(1982~1988년 전후기리그·1999~2000년 양대리그 제외)로 63.9%다. 이슬비기자



## MVP 향한 독주 시작됐다 오타니의 경쾌한 발걸음 시즌 24호포...10경기 8홈런 투수로도 6승 ERA 3.29

'야구 천재' 오타니 쇼헤이(29·LA 에인절스)가 또 다시 놀라운 시즌을 만들어가고 있다. 오타니는 19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카우프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메이저리그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경기에서 홈런을 쏘아 올렸다. 전날(18일)에 이어 두 경기 연속 홈런을 본 오타니는 시즌 24호 홈런을 신고했다. 올 시즌 홈런 레이스를 가장 앞에서 이끄는 중이다. 19홈런을 날린 애런 저지(뉴욕 양키스)를 제치고 아메리칸리그(AL) 홈런 선두로 올라선 오타니는 22홈런을 기록 중인 피트 알론소(뉴욕 메츠)도 밀어내고 메이저리그 전체 홈런 1위를 달리고 있다. 최근 압도적 타격 페이스를 뽐내고 있다. 지난달까지 15개의 아치를 그린 뒤 이달 들어 9개의 홈런을 터뜨렸다. 최근 10경기에서 8개의 타포를 쏘아 올릴 만큼 방망이에 불이 올랐다. 계속해서 홈런을 추가하면서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도 가뿐히 넘어설 전망이다. 오타니의 한 시즌 최다 홈런은 2021년 때려낸 46개다. 그해 오타니는 만장일치로 AL 최우수선수(MVP)를 거머쥐었다. 올해 팀의 74경기에서 24차례 담장을 넘긴 오타니는 산술적으로 52홈런을 때려낼 수 있는 페이스를 선보이고 있다. 홈런을 평평 터뜨리면서 타점도 계속해서 쓸어담고 있다. 이날 투런포로 타점 2개를 추가한 오타니는 시즌 58타점으로 메이저리그 전체 1위로 치고 나갔다. 2위 라파엘 데비스(보스턴 레드삭스·57타점)와는 1개 차다. 홈런과 장타율을 더한 OPS 부문에서도 1.016으로 선두를 지키고 있다. 오타니의 트레이드 마크인 '투타 겸업'도 계속되고 있다. 오타니는 올해 마운드에서 6승2패 평균자책점 3.29를 수확, 팀 내 최다승을 책임지고 있다. 올해 에인절스에서 규정이닝을 소화한 투수도 오타니뿐이다.

## 페루전 4-4-2 썼던 클린스만호, 오늘 엘살바도르전 4-2-3-1 복귀



### 대전월드컵경기장서 대비 훈련

지난 16일 페루전에서 4-4-2 포메이션을 썼다가 패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오는 20일 엘살바도르전에서는 4-2-3-1 포메이션으로 복귀할 전망이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은 18일 오후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엘살바도르전 대비 훈련을 가졌다. 오후 5시께 그라운드에 입장한 선수들은 달리기 통해 몸을 풀 뒤 포지션별로 대형을 만들었다. 안드레아스 헤어조크 수석코치와 마이클 김 코치가 지휘하는 가운데 선수들은 4-2-3-1 포메이션에 맞춰서 늘어섰다.

선수들은 상대 빌드업에도 대응을 유지하는 연습을 반복했다. 선수들은 공이 여러 지점에 투입돼도 간격을 유지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들에게 6m에서 8m 간격을 유지하며 촘촘하게 서라고 지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페루전 당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국은 페루전 때 공을 가진 상대 선수를 압박 과정에서 전방이 깨지면서 돌파를 자주 허용하고 실점까지 내줬다. 클린스만 감독이 4-2-3-1을 꺼내들면서 페루전에서 썼던 4-4-2 전형은 한 경기 만에 자취를 감추게 됐다.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3월 콜롬비아전과 우루과이전에서 4-2-3-1 전형을 쓴 바 있다. 뉴스

## '통한의 더블보기'...양희영, LPGA 우승 눈앞서 놓쳐

LPGA투어 마이어 클래식 선두 못지키고 3위  
16번홀 러프에서 친 세컨드샷이 나무에 맞아

양희영(34)이 최종 라운드 마지막 통한의 더블 보기를 범하며 4년여 만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우승 기회를 놓쳤다. 양희영은 19일(한국시간) 미국 미시간주 벨몬트의 블라이더필드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LPGA투어 마이어 클래식(총상금 250만 달러) 4라운드에서 3타를 줄여 최종 합계 18언더파 270타로 린시위(중국)와 함께 공동 3위에 올랐다. 단독 선두로 최종 라운드를 시작한 양희영은 이날 선두를 내줬다가 14번홀(파5)에서 이글을 잡아내 선두를 되찾았다. 그러나 16번홀(파4)에서 더블보기를 범했다.

16번홀 러프에서 친 세컨드샷이 나무에 맞는 불운이 있었다. 양희영은 공을 그린에 올린 뒤에도 3m 보기 퍼트에 실패했다. 이로써 양희영은 통산 5번째 LPGA 우승 사냥에 실패했다. 2008년 LPGA에 데뷔한 양희영은 2013년 LPGA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서 첫 우승을 달성했고 이후 2015년, 2017년, 2019년 혼다 LPGA 타이틀랜드에서 우승했다. 이후 4년여 동안 양희영은 LPGA투어에서 우승을 하지 못했다. 아쉬운 우승 실패에도 양희영은 경기 후 LPGA투어와 인터뷰를 통해 만족감을 표했다. 그는 "이번 주 내내 장소도, 날씨도 그랬

고 어려운 점은 있었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메이저 대회를 앞두고 경기력을 많이 끌어올린 것 같아 좋은 경험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양희영은 이어지는 메이저 대회 KPMG 위민즈 PGA 챔피언십을 향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부상 이후에도 그렇고 작년에 부진한 성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많이 경기력을 끌어올린 것 같다"며 "자신감을 점점 찾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서 기쁘고 메이저 대회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 우승은 리오나 매과이어(아일랜드)가 차지했다. 매과이어는 최종 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이글 1개, 버디 6개를 잡아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양희영을 포함해 한국 선수 3명이 톱10에 진입했다. 김효주는 16언더파로 단독 5위, 최



양희영이 18일(현지시간) 미 미시간주 벨몬트의 블라이더필드CC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마이어 LPGA 클래식 최종라운드 14번 페어웨이에서 어프로치샷하고 있다. 양희영은 최종 합계 18언더파 270타 공동 3위로 대회를 마쳤다.

혜진은 14언더파로 공동 8위에 올랐다. 뉴스

## 키움 이정후, 울스타 팬투표 2주째 1위...롯데, 8개 1위

키움 히어로즈 이정후(24)가 생애 첫 울스타 최다 득표에 바짝 다가섰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9일 2023 신한은행 KBO 울스타팬 투표 12 팬 투표 2차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1위 자리는 2주 연속 나눔 울스타 이정후가 지켰다. 이정후는 1차 중간집계에 41만759표를 추가, 총 91만3000표를 받았다. 최다 득표 2위 드림 울스타 롯데 전준우(83만5580표)와 격차도 벌었다. 5시즌 연속 베스트 12 선정을 앞두고 있는 이정후는 지난해 나눔 울스타 양현종(KIA 타이거즈)이 기록한 베스트12 역대 최다 득표(141만3722표)에도 도전한다. 롯데가 12개 포지션 중 10개 포지션을 쓸어담았던 드림 울스타에서는 두산 베어스 양의지와 삼성 라이온즈 호세 피렐라가 반격에 나섰다. 롯데는 여전히 8개 부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고졸 신인 김민석은 68만3114표로 삼성 구자욱(71만2181표)에 이어 드림 외야수 부문 2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어 2017년 이정후 이후 6년 만에 고졸 신인 타자 울스타 베스트 12 선정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나눔 울스타에서는 1차 집계와 동일한 선수들이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황재우 아시안게임 대표팀으로 발탁된 키움 김혜성, KIA 최지민, NC 다이노스 김주원이 동시에 첫 울스타 베스트12 선정을 바라보고 있다.

## 김주형, US오픈서 생애 첫 메이저대회 톱10 진입



### 최종 합계 4언더파로 공동 8위 마스터스 넘어 메이저 최고 성적

부진에 빠졌던 한국 골프 기대주 김주형(21)이 세계 최고 권위의 골프대회 US오픈(총상금 2000만 달러·우승상금 360만 달러)에서 10위권 안에 진입하며 생애 첫 메이저대회 톱10이라는 성과를 냈다. 김주형은 19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컨트리클럽 노스코스(파70)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1타를 줄여 최종 합계 4언더파를 찍어내 해리 잉글리시(미국)와 함께 공동 8위로 대회를 마쳤다. 공동 9위로 출발한 김주형은 이날 버디를 5개 잡아냈지만 더블보기를 1개, 보기를 2개 범하며 타수를 잃었다. US오픈 톱10 진입으로 김주형은 부진 탈출 계기를 마련했다. 김주형은 지난해 8월 윈덤 챔피언십과 10월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에

서 우승을 차지해 통산 2승을 올렸지만 이후 뚜렷한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직전 2개 대회에서는 킷 탈락했다. 김주형은 자신의 메이저 대회 최고 성적도 거뒀다. 김주형은 지난 4월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거둔 공동 16위를 넘어 톱10 진입에 성공했다. 김주형은 PGA 챔피언십에서는 3번(2020년, 2022년, 2023년) 모두 킷 탈락했다. 지난해 처음 나간 디 오픈에서는 공동 47위에 올랐다. 김시우는 4오버파를 기록해 공동 39위로 대회를 마쳤다. 이번 대회 우승은 10언더파를 친 윈덤 클라크(미국)가 차지했다. 클라크는 지난달 웰스 파고 챔피언십에서 PGA투어 첫 승을 거둔 뒤 1개월여 만에 2번째 우승을 메이저 대회에서 달성했다.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는 2014년 PGA 챔피언십 우승 이후 9년 만에 메이저 대회 우승에 도전했지만 클라크에 1타 차로 뒤쳐져 2위에 그쳤다.